

창조 이야기를 통해 기도하기 : 하나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이야기 찾기



기도주간 개인과 그룹을 위한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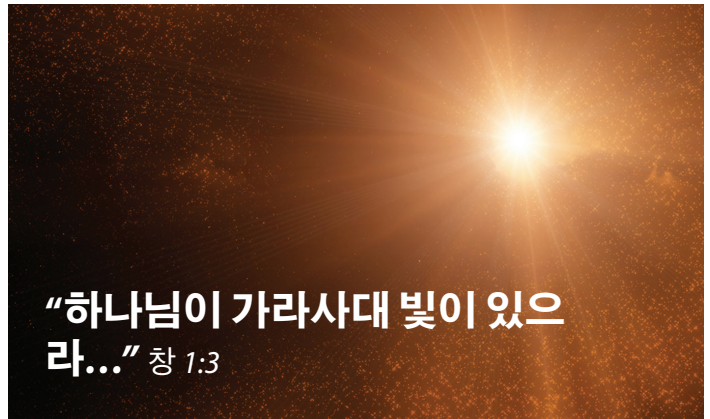
기도 주간에 대하여

지난 60년 이상, 언약교단은 1월에 있는 기도주간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 보급해 왔습니다. 이 자료들을 1월에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기간에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전하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기도주간 자료는 개인으로 또는 그룹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일주일용으로 사용되거나 7주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주) 섹션에는 “생각하기”와 “기도하기”의 예문이 있는데 이것을 시작점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토론이나 기도시간에 이 자료가 유용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기도주간 자료는 영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로 되어있으며, CovChurch.org/resources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퍼본은 CovBooks.com에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를 포함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들은 그 사람들 수 자체 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순례자들의 다양한 기도 순례의 길들은 신앙저술가들과 스승들로 부터 오랫동안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순례자들은 음악이나 또는 명상 등의 방법들을 통해 깊은 헌신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순례자들은 창조된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 그 앞에서 놀라움과 겸손함을 자아내는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창조주를 찬양하며 그에게 기도를 드리는 기도 순례의 길을 밟아 갑니다. 물론 이런 다양한 순례기도의 길들은 우리의 상황과 관심에 따라 섞이면서 더 다양한 형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연세계 자체가 자신들의 중요한 영적인 순례의 길들인 사람들에게는 본인 자신들의 믿음의 이야기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창조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 그리고 자연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쌓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도주간에 이 안내책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대한 찬양과 하나님의 현재성을 확인하는 통로로서의 그 자연세계를 통한 영적인 발견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
라...” 창 1:3**

DAY 1: 깨우침

성경읽기: 창세기 1:1-5, 요한복음 1:1-5, 사도행전 9:1-9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빛, 우리를 위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일 1:5).

이 말씀에 앞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창조전의 무형태 위에) 운행하니라” 히브리어로 “운행한다”는 단어의 뜻은 “떠 다니다 hovered” 또는 “품다 brooded”라는 단어로도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품다”라는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엇에 대해 꼼꼼히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또 “품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새들이 그들의 둥지에서 알을 품는 것과 같이 배양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근본이 되는 빛을 창조하기 전에 이 두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빛이 필요할까요? 사도행전 9장에 통해 우리는 사울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과 만난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홀연히 하늘로써 빛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멀게 할 정도의 광채에 의해 땅에 엎드려진 사울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단번의 순간적인 번쩍임에 의해 사울의 삶의 이전까지의 전체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던 것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특별한 빛이 사울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사울에게 비추기 위해서 먼저 진행된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빛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품으신” 것처럼 성령은 사울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끝난 며칠후에, 사울 자신도 다시 빛이 오기전 “품어야 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도를 잘 한다는 것은 품기를 잘 한다는 것입니다. 품기를 잘 한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상황을 완전하게 주님 앞에 다 고집어 낸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보면 때로는 우리 자신이 어느덧 예상치 않은 곳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들은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전혀 원치 않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때에는 사울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빛이 우리의 존재를 꿰뚫고, 밝히 비추고, 인도하도록 우리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사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빛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 왜냐하면 사울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기: 당신 집이나 교회에서 가장 어두운 옷장이나 찬장을 열어 보세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어두움이 당신이 서 있는 곳으로 확장됩니까? 아니지요. 그 반대가 맞지요. 빛은 언제나 어두움을 이깁니다. 혼자이든 그룹이든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도하기: 주님, 나는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빛을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항상 걸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이 있어”
창 1:6



“하나님이 가라사대 ... 물이 드러
나라 ... 땅은 풀과 ... 채소와 ... 과
목을 내라” 창 1:9,11

DAY 2: 사랑받기

성경읽기: 창세기 1:1, 6-8; 시편 36:5-10, 108: 3-6

이제 빛이 창조되었고 그로 인해 사물들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물을 궁창에서 분리하셨습니다. 무형체는 형체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야기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찾는 과정속에서, 우리는 결정적으로 개인적인 하나님의 행위들을 발견하게 되는 데, 이 하나님은 혼돈속에서 사랑, 아름다움과 질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36편과 108편을 보면, 시편기자인 다윗은 이러한 경이스러우면서 광대한 하늘들이 바로 자애로우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노래합니다. 두편의 시편속에 나온 “변함없는 사랑 steadfast love”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chesed”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사람에 대해 사용될 때는 손쉽게 “인자함”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성경번역가들이 이 단어가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사용되었을 때,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에 곤혹스러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속에는 “깊은 자비 tender mercy” 또는 “자애심 loving-kindness”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단어의 독특성과 풍부함을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번역의 어려움 자체가 바로 왜 이 단어가 전능자를 표현하는 단어로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이기도 할 것입니다.

시 19: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삶속에서 하루하루 삶의 보조를 맞추거나 단계를 거쳐가다보면, 우리 인간 삶의 조건들이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을 “내려다” 보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창조주의 완전함과 신비함을 “올려다” 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새로운 차원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커다란 관점과 이런 광대한 축복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각해보기: 마지막으로 차분히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 본적이 언제였나요? 그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당장 5분 동안 만이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어떤 것을 보셨나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이 천국에까지 확장되었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구름에 까지 이르렀나요? 그룹으로 있다면, 서로의 간증을 나누어 보세요.

기도하기: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렵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갈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주 아멘

(찬송가 447장: 오 신실하신 주- 작사 토마스 치솔름 Thomas Chisholm)

DAY 3: 경외함

성경읽기: 창세기 1: 1,9-13, 이사야 55:6-13, 누가복음 19:3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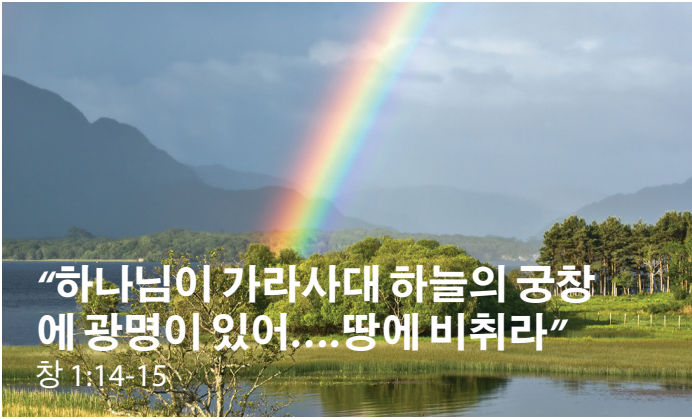
나님의 때에 맞추어 아름다운 세계가 장대하게 그 존재를 갖추게 됩니다. 숲들과 꽃들, 평지와 산들 그리고 호수와 대양들이 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점에서 창조를 멈추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암시적으로 인간의 행동이 없이도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들을 노래하고 나무들을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사55:12), 돌들은 소리질러 예수를 찬양(눅 19: 40)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어떠십니까? 완전하게, 명백하게 경배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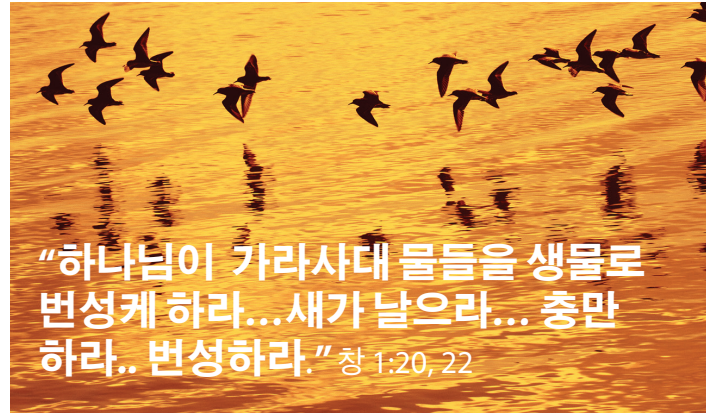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원천적인 교사들의 하나이지만, 복잡하고 숨겨진 문화 때문에 우리는 그 가르침을 못보고 지나갑니다. 다른 데서 찾을 것도 없이 예수께서 지속적으로 얼마나 자주 자연을 그 가르침에 사용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새들, 꽃들, 날새, 지리적 특징들, 나무들, 바다들, 물고기 그리고 계절들. 당신에게는 이러한 자연세계의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도로 이어지나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잘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믿음의 교훈을 쌓을 수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생각하기: 빈 종이 한장에 서로 다른 종류의 꽃 5가지에서 6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각의 꽃의 독특함과 아름다움을 꼼꼼히 생각해본 후에 그것을 글로 적어보세요. 이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고 어려움에서 건지셨던 방법들 또는 특별한 축복들을 떠올려보세요. 꽃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말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표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나요? 이런 자신의 경험을 적어도 한사람과 오늘 나누어 보세요.

도하기: 주님, 제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볼때, 주님의 그 넘쳐남에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안에서 주님께 완전히 내려놓거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고백을 들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찬사를 돌들에게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
에 광명이 있어....땅에 비취라”
창 1:14-15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을 생물로
번성케 하라...새가 날으라... 충만
하라.. 번성하라.” 창 1:20, 22

DAY 4: 자각하기

성경읽기: 창세기 1:1, 14-19, 9:8-17, 마태복음 16:1-4

창공에 있는 빛: 일출과 일몰, 크고 작은 무지개, 별뿔별들,, 구름들, 오로라, 광륜(태양 주변의 원)들, 별자리와 행성들과 같은 하늘의 경이로운 것들을 즐길수 있다는 것은 바른 때와 바른 장소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외에도 꼭 추가될 한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각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눈을 들어 희미해져가는 무지개나 광륜을 바라보나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어 얼마나 자주 우리는 별뿔별들 보기를 놓치나요? 우리가 이런 기회들을 놓칠때,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볼 기회를 놓칠뿐 아니라, 감사할 기회도 놓칩니다. 우리는 자각하고 있을 때, 비록 천문학자나 기상학자가 아닐지라도 하늘의 수많은 기쁨들을 즐길수 있습니다.

호기심과 진심으로 가득찬 다윗왕의 시편 8편을 보세요. 아니면 오늘날의 크리스찬 자연주의자의 영감이 된 19세기의 존 뮤어 (John Muir)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저기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기력한feckless 피조물들은 가장 적절한 순간에 우리앞에 불려오기로 계획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영예를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러한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모든 축복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기력한feckless”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로움에 대한 뮤어의 전염성있는 열정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현존성에 대한 자각은 무지개를 감상하거나 또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것 만큼이나 간과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언약의 증거니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성의 증거들을 얼마나 자주 무시합니까?

생각하기: 오늘이나 내일 야외에 있을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보세요. 또한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끊임없는 그리고 당신을 “품는” 현존성을 대해 감사의 표현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시나요?

기도하기: 주님, 찬송작시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에 있는 빛들은 “...자연속에 있는 모든 것들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공휼과 사랑을 증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창공을 보여주시는 만큼 자주 그 영화로움에 주의를 기울이지는 못할지라도, 제 삶속에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놓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DAY 5: 알려짐

성경읽기: 창세기 1:1, 욥기 12:7-10, 마태복음 6: 2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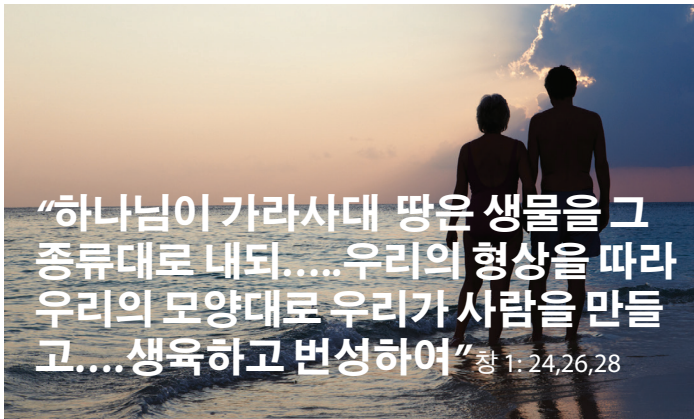
“충만하라..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너그러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진정한 풍성함을 생각할때 그 의구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알려진 것만 오천종의 포유류와 삼 만종의 물고기와 일 만종의 새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원시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자연세계를 본따서 신들을 만든것도 놀랄 일이 아니지요.

이런 놀랄 정도의 많은 종류의 창조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의 고통스러운 시기에 격려를 받은 것은 몇몇의 짐승들이었습니다. 욥기 12장을 꼭 읽어보도록 하세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었는데, 동물들은 욥에게 곤경의 상황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 6장과 10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공중의 새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작은 참새 한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창 1장에서 자주 접하는 표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히브리어의 “좋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tov 입니다. 이 Tov 라는 단어는 단순히 “좋다”라는 뜻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즐거움, 커다란 기쁨, 최상의 선, 심지어는 넓게 해석해서 웰빙의 의미까지도 담고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최상급으로서의 “베스트 tov”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물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은 늘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생각하기: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새울음소리 만으로 몇 종류의 새를 알아볼수 있나요? 개똥지바퀴? 까마귀? 박새? 삼분동안 최대한으로 이렇게 울음소리로 알아볼수 있는 새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수탉의 이름까지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이름,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들려보세요. 오늘 당신은 좀처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때를 다른 이와 나누어 보세요.

기도하기: 하나님, 저는 주님의 창조에 놀랍고, 또한 그 복잡함과 다양함에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땅의 모양, 동물들, 천체, 그리고 인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창조의 색깔은 너무나 풍부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땅과 그 돌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고....생육하고 번성하여” 창 1: 24,26,28

DAY 6: 소중하게 간직하기

성경읽기:창세기 1: 1, 24-31, 시편 8편, 시편139편13-18,
누가복음12: 4-7

어린 목동인 다윗이 해질 녘에 양떼를 다 치고서 드러누워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시 8:4) 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의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의 심정으로 “사람이 무엇이관대”를 강조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당신의 창조물들 중에서 보잘 것없는 이 땅에서 보잘 것없는 이 인간에게 왜 관심을 가지십니까?”라고. 다른 식으로 읽을 때는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를 강조하며 이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두번째의 강조점을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 생각해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당신은 나를 보고 계시며, 나를 알고 계시며, 심지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당신의 작품들을 관리할 권한을 주셨습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시편 8:9)

생육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을 우리가 학대할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권한과 임무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청지기로서의 책무를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생각하기: 공항에서, 쇼핑센터에서, 시내 한복판에서, 또는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당신은 사람들은 찬찬히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호기심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신 적은 있으실지 모릅니다. 그런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와 열린 마음으로 “저기 또 한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있구나. 저기 또 하나의 하나님 창조의 최고봉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당장 당신 주위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기도하기: 주님, 앞에서의 시 8:4에 대한 첫번째 해석처럼 얼마나 빨리 우리는 세상을 절망으로 바라보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가 자체가 서로에게 행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들, 인류의 창조물에 대한 남용과 방치들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관심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를, 그리고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것들을 사랑의 관심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
째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안식하시니라...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창 2: 2-3

DAY 7: 감사하기

성경읽기:창세기 1: 1, 2: 1-3, 시편 46편, 마태복음 11: 25-30

창 2: 1-3 “...다 이루니라... 일이 다하므로....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라고 쓰여있습니다. 하나님의 첫번째 일은 완성되었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주 그렇듯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따르기를 원하는 모범을 먼저 보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셨을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충만함과 배려있는 고마움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면 우리의 이야기도 같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창조와 함께 안식과 영적 감사함도 또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안식은 우리를 다시 충만케 합니다. 영적 감사함은 바로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두가지 모두에 시간을 할애하여 연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누려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중대한 일을 마무리 지었을 때의 느낌을 기억하시나요?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쳤을 때의 느낌은 어떤가요? 그것도 일종의 중대한 일을 마무리한 것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중에는 “소동나팔”(호레이스 로렌조 트림 작사)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태양도 갑니다.

호수들에서, 언덕들에서, 하늘에서

만물이 평온하고, 안전하게 쉬고 있으며,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날들에 대해 감사하고 찬미합니다.

태양아래, 별들아래, 하늘아래에 있었던.

살아가면서 이것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되돌아 보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생각해보기 안식일 또는 어느 정한날에 대해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볼 때, 수세기에 걸쳐 믿음의 사람들은 규명(examen)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는 대부분 저녁시간을 통해 진행되는 데, 자신의 하루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주의깊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느껴졌는가? 또는 언제 가장 멀게 느껴졌는가? 왜 그렇게 느껴졌는가? 어떤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가? 언제 내가 가장 하나님께 집중하였나? 가장 하나님께 부주의한 것은 언제인가? 오늘 하루 나는 예수님을 잘 대표했는가? 언제 그렇게 했는가? 내일은 다르게 할 것들이 있는가? 물론 질문의 내용들은 변할 수 있지만, 정기적인 규명은 지속적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주님,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창조물들을 통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 모습은 드러내시며 늘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주님의 창조적인 장엄함과 영감을 주는 아름다움과 겸손하신 경이로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의 참 주인이신 주님, 이 땅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장엄한지요. 아멘

릭 밀렌더 Rick Mylander 는 오랜동안 언약 교단을 행정 목사로 섬겼으며, 현재는 Transitional Intentional Interim work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언약 교회의 시카고총단 멤버인 그는, 지금은 그의 부인 게일(Gail)과 같이 콜로라도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로는 네 명의 자녀들, 세명의 사위들, 그리고 일곱명의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캐슬 락에 있는 캐슬 오크스 언약교회(Castle Oaks Covenant)의 교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영성과 창조에 관한 블로거 (rickmylander.com) 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도, 음악, 캠핑, 하이킹에 시간을 보내며 또한 자연사진작가으로도 활동 중에 있습니다.

Scripture taken from the Holy Bibl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All rights reserved worldwide.

This resource is available in English, Spanish, and Korean.

Para recursos en español comunícate con Wilson Herrera:
wilson.herrera@covchurch.org

© Copyright 2015 The Evangelical Covenant Church

A Make and Deepen Disciples Resource

Website: CovChurch.org

For information: mdd@covchurch.org

To download more *Week of Prayer*: CovChurch.org/resources

To order printed copies of *Week of Prayer*: CovBooks.com